

#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에 관한 비교연구\*

백태열 |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사

본 논문은 대표적 제3세계 국가인 필리핀과 이집트가 자국의 군사적 종속상황을 타파하는 과정과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필리핀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 군사적으로 극심하게 의존되었고 이집트 역시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원조와 지원을 통해 예속되어 있었다. 이집트와 필리핀은 소련과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그 후에 이 두 국가는 자생적 의지, 국내적 합의, 그리고 지도력의 선택과 결정 등에 의해 지배국인 소련과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예속을 타파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양국의 사례에 나타난 필리핀-미국과 이집트-소련의 군사적 관계는 힘의 불균형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을 통해 저자는 종속타파의 개념과 분석틀을 통해 필리핀과 이집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findings)는 종속타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과 이집트는 특정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반항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또 다른 측면은 양국 모두 지배국가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예속을 탈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자생적 종속타파를 이루었다는 점이며 종속국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군사적 종속을 탈피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필리핀과 이집트의 사례에서 나타난 주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국내적 차원에서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극복하였지만 후자의 경우 그러한 국내적 노력 특히 민족주의에 기초한 공감대와 자주권 확보의 욕구는 상대적 취약하였지만 사다트의 정치적 판단과 지도력이 종속타파의 주요한 변수가 된다.

**주제어:** 필리핀, 미국, 이집트, 소련,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군사적 종속과 타파, 민족주의, 주권과 자주권의 회복

\* 이 논문은 2004 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3-B00003).

## I. 서론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중의 하나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1945년 이후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법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대국 혹은 선진국과 의존상태에 놓여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의존하는 영역은 경제, 외교, 군사 및 안보, 그리고 심지어 정보와 문화 등 다양하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를 경험한 이후 1947년의 군사기지협정과 1951년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았고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필리핀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군사안보정책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군기지에 반대여론이 비등하면서 필리핀 상원은 1991년 9월 미국과의 기지연장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군을 철수시켰다. 이집트의 경우 나세르(Gamal Abdel-Nasser)가 1952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이후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이집트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군사적으로 소련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동시에 소련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군사적 이익과 미소의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10월 안와르 사다트(Anwar al-Sadat)가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집트는 소련과의 군사적 밀월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종속에서 탈피하려고 시도하였다.

필리핀과 이집트는 제3세계의 군사적 여건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은 특정국가와의 군사적 종속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집트와 필리핀의 군사적 종속타파를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이집트-소련과 필리핀-미국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종속타파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적 문제를 제기한다.

-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의 영역과 분야는 무엇인가?
-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상황, 여건, 및 정책 등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쳤는가?
-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각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집트와 필리핀인가? 이 두 국가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 보다 군사적 종속타파를 비교적 확연하게 분석,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집트와 필리핀의 경우 소련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벗어난 구체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 두 국가를 기존의 이론적 분석틀에 의해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 다른 중요성은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이다. 종속타파(Counterdependence)의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실제적으로 적용 시킴으로써 본 논문은 이론적 유용성과 한계점을 평가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분석틀(Theoretical Framework)

### 1. 이론적 검토와 평가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종속타파는 국제정치 분야에서 비교적 생경한 개념이다. 종속이론에 관한 논의는 광범위하지만 종속타파와 군사적 종속타파에 관한 이론적 시도는 극도로 미약하다. 그러나 종속타파와 간접적인 연결성을

갖는 이론적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헨델 (Handel, 1981)은 강대국-약소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비공식 불평등한 관계유형”으로 규정한다.<sup>1</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소국은 거의 대부분 강대국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독자적 선택과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슈메이커와 스페니어 (Shoemaker and Spanier, 1984: 13-15)는 헨델과 유사한 관점에서 강대국-약소국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들은 강대국-약소국의 관계를 보호자-피보호자의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s)로 정의한다. 그들의 설명은 보호자-피보호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군사적 능력의 현저한 차이에서 기인하며 보호자(보호국)는 피보호자(피보호국)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학자들의 입장도 유사하다. 아버네티 (Abernethy, 1984: 105-108)는 지배-종속의 관계(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s)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그는 지배-종속의 관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배국과 종속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종속국의 국내외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또 다른 논의는 강대국-약소국의 관계를 영향력 이론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빈스타인(Rubinstein, 1977)은 자신의 저서에서 소련과 이집트의 관계를 그러한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영향력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원하고자 하는 것을 획득할 때 명백하게 확인된다.<sup>2</sup>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그러한 타당성을 수용하면서 영향력 이론은 반드시 강대국-약소국의 관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국력의 편차가 적은 양국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Lee and Sato, 1982).<sup>3</sup>

- 
1. Michael Handel. 1981.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otowa, N.J.: F. Cass. 저자는 영문원본을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역본을 사용하였음. 번역본은 Michael Handel 저 김진호 역 1995. 『약소국 생존론』 서울: 대왕사. pp. 148-149를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Alvin Rubinstein. 1977. *Red Star On the L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의 Preface를 참조(이 부분에서 이론적 논의와 주장을 요약하였음).
  3. Chae-Jin Lee and Hideo Sato. 1982.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지금까지 제시된 학자들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론은 일반적 차원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의 실상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종속국의 입장과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종속국이 타국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몇몇 연구들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싱거(Singer, 1972: 273-309)의 군사적 종속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종속타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즉 종속국은 종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보이면서 종속국-피종속국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존슨(Johnson, 1986: 286)은 약소국의 종속극복에 관한 전략을 논의한다. 약소국은 강대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주권”을 얻기 위한 외교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약소국은 민족자결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논의의 중심은 종속의 극복을 위한 동력과 추진력을 암시하고 있다. 종속타파의 이론적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타국의 군사적 예속 하에 있는 약소국은 자주권의 손상, 내정간섭, 대외군사정책의 제약, 종속국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군사적 예속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발전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종속타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싱거의 이론적 접근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종속타파(Counterdependence)는 무엇인가? 싱거는 종속타파를 “의존적이거나 혹은 열등한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상태”(Singer, 1972: 42)라고 정의한다. 그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종속타파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즉 종속타파는 종속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 혹은 진행을 강조한다. 둘째, 종속타파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달리 해석하면 종속타파는 의존적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지, 욕구, 그리고 열망 등

을 포함한다. 개념적으로 볼 때 종속타파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적 상황인지 혹은 실제적 극복인지 불분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종속타파의 개념은 다소 논쟁적일 수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종속타파는 과정과 결과의 두 가지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sup>4</sup>

군사적 종속타파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싱거는 군사적 종속타파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종속타파의 정의를 활용하여 개념은 정리될 수 있다. 군사적 종속타파(Military Counterdependence)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상황 혹은 상태로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종속타파는 예속을 벗어나려는 과정과 이를 완전히 실현한 결과의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 모두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사적 종속타파의 총체적인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싱거의 이론적 논거는 본 논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즉 그의 분석틀에 따르면 크게 군사적 종속의 원인과 상황 그리고 종속의 범위와 내용 등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단계로 요약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한 국가가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에 의존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싱거는 제3세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취약점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침략가능성, 군사적 지도력의 부재, 낮은 경제수준과 이로 인한 국방력의 저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싱거는 보다 명확한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군사 안보적 관계에서 어떤 부분과 영역에 예속되어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거는 비교적 상세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군사적 종속의 주된 지표(혹은 기준)는 크게

4. 종속과 의존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속은 의존보다 예속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군사적 종속의 개념은 안보 및 국방 부분에서 여러 영역이 의존된 상태로서 구조적, 제도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Counterdependence의 번역도 다양할 수 있으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저자는 이를 종속타파로서 번역한다.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Singer, 1972: 274-309).<sup>5</sup>

- 군사협정 및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 군사기지 및 주둔군인
- 피종속국 으로부터의 군사장비 및 무기의 수입
- 피종속국에서의 종속국의 군인의 군사훈련 및 교육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한 가지 주장은 군사적 종속은 결국 정도의 문제이며 따라서 군사적 종속타파 역시 정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개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단계는 군사적 종속타파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 졌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즉 종속타파가 종속국의 주도에 이루어졌는가, 혹은 피종속국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싱거는 구체적인 논의와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종속타파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별도의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 종속의 여건과 상황이다. 이 부분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구성하는 세부적 상황은 크게 다음의 (i) 종속대상국의 국가안보의 위기상황(내란, 외부의 침략, 전쟁, 혹은 기타 안보상의 위기) (ii) 피종속국의 정치, 외교, 안보의 이해와 이익이 추구(이 경우 다시 해당국가와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종속타파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여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자생적 여건에 의한 종속타파”와 “타생적 여건에 의한 종속타파”이며 이를

5. 싱거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표 혹은 기준이라는 표현보다 “tie(연결고리)”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주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지표 혹은 기준의 의미와 유사하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종속타파의 여건

자생적 종속타파(종속국의 주도)	타생적 종속타파 (피종속국의 주도)
민족주의의 증대 주권 및 자주권의 회복	피종속국의 국내적 변화
군사/안보 여건의 변화	피종속국의 지역적, 국제적 변화
종속국의 국내적 변화	피종속국 정부/지도자의 선택과 결정

자생적 종속타파는 종속국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군사적 종속타파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 요인(독립변수)은 외국주둔 군대에 대한 종속국의 강한 거부감과 저항감 등이 고조되거나 혹은 자주적, 자립적 국가방위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증대되는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종속국의 국내적 여건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특정 국가에게 군사적으로 의존될 수 있는 원인이 소멸된 경우이다. 따라서 종속국은 더 이상의 타국의 국방력에 의존하여 자국의 국가방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마지막 요인은 종속국의 특정한 지도자가 외부(혹은 타국)에 의존하는 경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군사적 종속타파를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이다.

반면에 타생적 종속타파는 종속타파의 상황이 피종속국의 의지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자생적 종속상황의 반대의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피종속국의 국내적 여건이다. 피종속국이 종속국에게 제공하던 군사적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종속국과의 관계는 종료된다. 두 번째 요인은 종속국가의 국내적 변화이다. 피종속국은 종속국에서 발생한 국내적 변화로 인해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양국의 군사적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피종속국의 정부의 판단과 선택이다. 피종속국의 지도자 혹은 정부는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종속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을 때 종속 관계는 종료된다.



## 2. 접근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성격과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저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비교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필리핀의 對 미 군사적 종속과 이집트의 對 소 군사적 종속의 발생원인과 상황을 각각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군사적 종속의 발생원인을 국내적 여건과 국제적 여건으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한다. 둘째, 이집트와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예속되었는가 하는 점을 논의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네 가지 영역 “(1) 군사원조의 양과 범위 (2)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여부 (3) 피종속국 으로부터의 군사장비 및 무기구매와 수입 그리고 (4) 피종속국에서의 군사훈련과 교육” 등을 중심으로 종속의 상황과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이집트와 필리핀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배국으로부터 군사적 종속을 극복하고 타파했는가 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저자는 양국에서 나타난 군사적 종속타파의 움직임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상황과 전개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1) 양국의 군사적 종속의 요인 (2) 군사적 종속타파의 과정과 전개 (3) 피종속국의 대응과 반응 그리고 (4) 양국의 군사적 종속의 자생적 종속과 타생적 종속에 대한 평가” 등 4가지 항목이며 이러한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자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1947년 이후부터 1991년 미국이 필리핀의 영토에서 떠날 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1952년 나세르가 등장한 이후부터 1976년 이집트와 소련의 군사적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던 시점까지 논의된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저자는 이러한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III. 필리핀과 이집트: 군사적 종속상황과 종속타파의 전개

이 장에서는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상황에 대한 배경을 먼저 개관하기로 한다. 우선 저자는 필리핀-미국, 이집트-소련의 일반적 및 군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먼저 필리핀의 경우가 검토된다.

#### 1. 필리핀

##### (1) 군사적 종속의 여건

필리핀은 48년 동안의 미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1946년 7월 4일 독립을 이루었다. 그 후에도 필리핀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고 미국의 정체제도와 특성을 모방하였고 양국의 경제관계도 활발하였다. 전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필리핀은 미국적 색채가 강하였다. 1947년 3월 양국은 군사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 1951년 8월 상호방위조약(Mutual Security Treaty)을 각각 체결하였다.<sup>6</sup> 이러한 일련의 조약체결로 인해 양국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무엇인가? 저자는 미국과 필리핀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1945년 종전과 함께 소련의 팽창주의적 공산화정책은 전 세계의 도처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그리스의 내전에 개입하였고 중동의 아제르바이잔에서 친공산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특히 1946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후원하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45년부터 1940년대 후반에 이르는 국제정세는 냉전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1949년 10월 중화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출범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은

6. 그 밖에도 미국은 일본(1951년), 한국(1953년), 그리고 대만(1954년)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서남아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아시아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1951년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공산주의세력의 준동과 움직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안보이익과 군사적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냉전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세력권의 확대와 군사적 동맹군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필리핀은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그 후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1947년 독립을 쟁취한 이후 필리핀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전후 필리핀대통령이었던 마누엘 로하스(Manuel A. Roxas)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와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쟁취한 거의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안보, 경제, 교육, 제도 등 여러 부분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국가건설과정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필요하였다. 독립이후에도 양국의 관계는 지배-피지배의 종속관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군사와 안보 부분에서의 상황은 군사기지협정과 군사원조협정으로 확인된다. 필리핀이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냉전의 상황이다. 1940년대 말 이미 전 세계로 확대된 냉전의 상황에서 필리핀 역시 안보상의 불안감을 가졌다.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정권의 등장과 역내의 불안정은 필리핀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를 통해 미약한 국방력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1950년의 한국전쟁과 1960년대 중반의 베트남전쟁을 지켜보면서 필리핀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군사적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리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필리핀의 국내적 여건과 상황이다. 필리핀의 독립과 함께 국내에서는 후크(Huks)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사실상 공산주의노선을 지지하면서 필리핀의 팜파간, 불리칸, 탈락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농민연맹(National Peasant Union)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sup>7</sup> 독립 이후 이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로하스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기술적 도움을 받았다(양승윤, 2003: 69-70). 이 반란은 독립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향후 반정부집단의 정치세력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통해서 국내의 소요와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냉전의 상황과 국내의 공산주의의 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적 의존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 가르시아(Carlos Garcia), 마카파갈(Diodado Macapagal) 등 역대 필리핀 대통령들은 친미적 성향을 가졌고 이러한 점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냉전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었고 국내의 안보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르코스가 1965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필리핀의 관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마르코스는 집권초기에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변화 외교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대군사의존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르코스는 친미성향이 강했고 양국관계를 필리핀의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마르코스의 친미적 성향은 필리핀의 국내적 상황과 연결된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두 가지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69년에 결성된 신인민군대(New People's Army)이다. 이 조직은 공산주의의 게릴라 집단으로 테러활동을 통한 사회주의의 노선을 확립하려는 집단이며 필리핀의 마오주의 공산당(the Maoist Communist Party)과 정치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sup>8</sup> 둘째, 1960년대에 결성된 모로 회교해방전선(the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이다. 이 단계는 사실상 Kuk 조직의 전신으로 필리핀을 회교사회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집단이다. 공교롭게도 이 집단은 모두 마르코스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인 1960년대 말에 결성되어 테러 활동을 통한 국내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마르코스의 입

7. 이 부분에 관해서는 <http://www.com/wfb2001/philippines>을 참조.

8. 이 부분에 관해서는 [http://en.wikipedia.org/wiki/Moro\\_Islamic\\_Liberation\\_Front](http://en.wikipedia.org/wiki/Moro_Islamic_Liberation_Front)를 참조.

장에서 보면 이러한 국내적 불안정과 좌익 활동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은 안보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반 정부단체의 활동은 마르코스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국내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었고 필리핀의 국내안정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의 국내정치적 상황은 1972년 마르코스가 재선되고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마르코스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필리핀 국내에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운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변화시키려는 활동과 노력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과 체결한 일련의 군사협정 및 상호방위조약을 필리핀의 대외관계의 주축을 이루었고 따라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상태는 고착화되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필리핀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주된 배경은 국내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공산주의의 위협 때문이었다.

## (2) 필리핀의 대미군사적 종속: 실체와 전개

### 1) 필리핀-미국의 군사협정 및 상호방위조약

필리핀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양국이 체결한 일련의 군사동맹조약이다. 양국은 1947년 3월에 체결된 군사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과 군사원조협정(The RP-US Military Assistance Agreement), 그리고 1951년 8월의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을 각각 체결하였다. 먼저 저자는 1947년 3월 14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기지협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필리핀에 군사기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 및 기타시설 등을 포함한 23개의 군사시설을 99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미국정부는 필리핀내의 군사시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필리핀이 군사안보 부분에서 미국에게 의존하게 만든 법적 기초였다. 필리핀의 對미 군사적 의존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협정은 군사원조협정이다. 이 협정은 군사기지협정이 체결된 직후 1947년 3월 21일에 체결된 부속협정(Sister agreement)이

다.<sup>9</sup> 이 협정의 전문은 “독립 이후 필리핀 군대의 훈련과 발전, 그리고 군장비의 구입 등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여망을 고려하여 미국 대통령은 공동방위의 문제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리핀 정부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sup>10</sup>고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은 모두 23개의 세부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조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저자는 몇몇 조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동 협정의 제1조는 “상호협정에 따라서 미국정부는 군대의 훈련과 발전을 위해 필리핀정부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 이다…”<sup>11</sup>고 명시되어 있다. 또 다른 조항은 군사고문단(Military Advisory Group)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이다. 동 협정의 8조는 “군사고문단의 기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필리핀에 조언과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sup>12</sup>고 적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필리핀이 안보정책을 수립하거나 군사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독자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호방위조약은 약소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외군사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고 군사적 자주권을 종종 훼손시킨다. 따라서 필리핀과 미국과의 군사원조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동 협정의 6조는 일반적인 군사원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필리핀 군대에게 무기, 탄약, 군사장비, 전투기와 전함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의 21조는 군사훈련지원(Training assistance)에 관한 것이다.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의 일부로서 선발된 필리핀 학생들을 미국에 보내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부대에서 기술 및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8월 13일 상호방위조약(Mutual Security Treaty)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전문과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이 협정의 영문원본은 <http://www.yonip.com/main/articles/1947.html>을 참조. 저자는 인쇄본을 입수하지 못하여 대신에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인용함.

10. 상계서.

11. 상계서.

12. 상계서.

이 조약에서 양국은 “외부의 군사적 전략에 대해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양국의 단결과 공동의 결의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sup>13</sup> 13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이 조약의 3조는 외부의 군사적 침략에 대해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4조는 당사국중의 한 국가가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방위를 구축하고 있다.

양국이 체결한 3개의 군사 및 방위조약은 외형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필리핀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양국이 공동의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약들은 양국의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기 보다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 2) 군사기지 및 외군군대의 주둔

싱거의 주장에 따르면 군사적 종속의 또 다른 지표는 외국군대의 주둔과 군사시설이다. 1947년 양국의 협정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시설을 유지하여 왔다. 필리핀에는 미국의 군사방위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1947년부터 미군이 주둔하고 대규모의 군사시설을 유지하여 왔다. 대표적인 군사시설은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 in Pampanga and Tarlac), 수빅만 해군기지(Subic Naval Base in Bataan and Zambales), 존 헤이 공군 이착륙장(John Hay Air Station in Baguio City), 월레스 공군 이착륙장(Wallace Air Station in La Union), 그리고 산 미구엘 통신소(San Miguel Station in Zambales) 등이다.<sup>14</sup> 그 외에도 소규모의 미국군사기지 및 시설은 대략 15개이다. 클라크 공군기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이며 수빅만 해군기지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해군기지이다. 이러한 미군기지과 시설에 주둔하고 미국병사는 1979년 기준으로 대략 육군은 28명, 공군은 8,005명, 해군은 4,594, 그리고 해병대 786명이 각각 필리핀에 주

13. 이 조약의 영문원본은 <http://www.yonip.com/main/articles/treaty.html>을 참조.

14.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람. *Toppling the Idols and Breaking the Deadly Connection: U.S. Bases in the Philippines*. 1988. Quezon City, Philippines: National Forum for Church Response. pp. 4-6.;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Overseas Military Installations*. 1979. Washington, D.C.: U.S.G.P.O. pp. 144-145.

둔하였고 전체 미군의 수는 13,413명이다.<sup>15</sup>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는 1988년 기준을 기준으로 필리핀의 모든 미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은 17,870명이다.<sup>16</sup> 1991년 당시 필리핀 주둔 미군의 수는 15,000명의 군인과 1,000명의 군무원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기지의 설치는 앞서 설명된 양국의 군사협정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이다. 외국군대의 주둔과 군사기지의 허용은 종속국의 국방력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종속국은 외국군대의 도움이 없이는 자국의 안보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군사적 예측의 또 다른 측면이다. 외국군대의 기지와 주둔군은 해당국민과 가장 직접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는 부분이고 법적, 사회적, 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시켰다.

### 3) 미국의 필리핀 무기 공여

미국의 군사적 종속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또 다른 증거는 군사장비 및 무기의 공여이다. 피종속국은 현실적으로 군사장비와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군사장비와 무기를 유상으로 혹은 무상으로 공여 받는다. 특히 이러한 무기의 지원으로 인해 보다 심각한 상황은 특정한 국가로부터 무기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종속국이 종속국에게 군사장비와 무기를 공여하거나 수출하지 않을 경우 종속국의 국가안보는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50년대부터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와 무기의 대부분을 공여 받았다.<sup>17</sup>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필리핀은 1950년대 초부터 1973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군사장비와 무기를 공여 받거나 혹은 구매하였다. 군사용 비행기(예를 들면, Lockheed T-33, Gruman HU-16A Albatross), 군사용 선박(예를 들면, patrol boat, Infantry landing craft), 그리고 장갑차(예를 들면, M-4 Sherman) 등이다.<sup>18</sup>

15. United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Overseas p. 145.

16. 이와 관련된 자료는 김경숙 1988. 「필리핀의 딜레마 군사기지」, 『말』 10월 p. 76 참조.

17.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필리핀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였지만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4) 필리핀 군인의 미국에서의 군사훈련 및 교육

군사적 종속의 또 다른 지표는 종속국가의 군인 혹은 영관급 장교들이 피 종속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지표는 종속국의 군인들의 질적 취약성에 기초한다. 종속국의 군인들은 안보와 전쟁에 필요한 현대식의 훈련과 전투능력을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문제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은 종속국의 군사력 하락으로 연결된다. 필리핀군인들은 IMET(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의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미국본토 혹은 미국본토이외의 군사훈련소에서 군사훈련 혹은 교육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군인들은 1950년부터 1968년까지 12,217명이 훈련을 받았다(Singer, 1972: 301). 또 다른 자료는 1950년부터 1980년 초까지 대략 17,000의 필리핀 군인들이 미국의 재정적 지원 하에 미국의 군사학교와 훈련소에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준다.<sup>19</sup>

간단히 정리하면 앞서 제시된 4가지 군사적 종속의 지표를 살펴 본 결과 필리핀은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3) 필리핀의 군사적 종속타파: 과정과 결과

필리핀의 정부지도자와 국민들이 외국과의 군사적 예속상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한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정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의 탄압과 독재정치에 대해 많은 필리핀국민들이 저항하였고 반마르코스의 열기가 확대되었다. 1986년에 일어난 필리핀의 민중의 혁명(People's Power)은 마르코스를 권좌에 내쫓았다. 필리핀의 대미 군사적의존의 타파는 사실상 마르코스정권의 붕괴와 궤를 같이 한다. 마르코스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염원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의 정권하에서 오래 동안 유지되었던 필리핀-미국의 동맹관계의 실체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1986년 2월 코라손 아퀴노(Corazon Aquino)가 대통령

18. 이와 관련하여 *Arms Trade Registers: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 Stockholm, 1975. Sweden: SIPRI. pp. 17-19. 참조.

19. <http://lcweb2.loc.gov/cgi-bin/query>를 참조.

에 취임하면서 필리핀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군의 철수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필리핀국민들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불이익과 불편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다.

군사적 종속타파의 추진력(Driving force)은 무엇인가? 대략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는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였고 독립이후 민족주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기 위한 무기로서 전환된다.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강한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살바도르 마르티네그(Salvador Martineg)의 주장에 따르면 필리핀의 민족주의 역사는 16세기 초에 시작되어 1950년대 이래 유지되었고 1960년대에는 클라로 렉토 등에 의해 활성화되었다.<sup>20</sup> 결국 필리핀의 민족주의는 반미주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승화되었다. 동시에 민족주의의 열기는 필리핀국민들에게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에서 기인하는 지배국의 독선과 횡포, 그리고 내정간섭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주권과 자주권의 회복이다. 주권과 자주권은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전후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자존심과 주권이 손상되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에드 가르시아(Ed Garcia)와 프란시스코 네멘쯔(Francisco Nemenz)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Garcia and Nemenz, 1987: 4).

독립은 단지 자기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 국가는 강대국의 저당품이 아니라 자주적 행위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모든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독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기를 갖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독립을 갖고 있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제안을 발의해도 제3세계의 대표들은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여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리핀은 자국의 땅위에서 거대한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강대국의 저당품으로 보여진다.

20.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Salvador Martineg, 1983. 「필리핀의 민족주의」, 『기독교사상』 5월, pp. 45-48을 참조함.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체계가 필리핀의 대외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필리핀은 미국을 의식하거나 혹은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일부 필리핀 국민들은 자국의 주권이나 자주권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군철수를 둘러싼 필리핀 국민의 반감은 미국의 마르코스 체제에 대한 옹호에서 기인하였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들은 마르코스 집권 이후 필리핀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독재정치가 유지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 밖에도 필리핀 국민들이 미군철수와 미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현지인과 미군사이의 마찰 등은 외국군대를 수용하고 있는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필리핀 국내에 설치된 핵무기이다. 1970년대 초에 미군은 필리핀에 핵무기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3년까지 핵무기의 수는 대략 260정도에 달하였다. 1985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필리핀에 227개의 핵무기를 설치하였으며 그중 32개는 반잠수함 핵폭탄이며 80개는 해군용 핵무기, 그리고 그밖에 115개의 핵폭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1</sup> 핵무기의 설치와 사용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용되기 위함이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는 필리핀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수행할 경우 필리핀 국민들은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핵무기의 설치와 시설에 민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공격의 목표가 되었던 것은 미군기지의 폐쇄와 미군의 철수이다.

21. Ronald G. Simbulan, *A Guide To Nuclear Philippines*. 1989. Manila, Philippines: Ibon Databank Phils, Inc. p. 59와 p. 78을 참고. 이 책에는 필리핀의 미국핵무기와 관련된 정보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그러면 필리핀이 미국과의 군사적 연속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조치, 및 정책은 무엇인가? 마르코스가 축출당한 이후인 1986년 2월 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필리핀의 국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1988년 6월 6일 필리핀 상원을 통과한 “반핵병기 법”이다. 이 법안은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그리고 양국동맹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의 5조는 금지행위에 관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운송이나 하역을 불문하고 핵병기 또는 핵부품과 그 구성부분을 필리핀 영역내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또는 소유, 보유할 수 없다. 필리핀 군사기지 내 미합중국의 기존 군사 설비를 포함하여 필리핀영역의 상 하, 상공 어느 곳에서도 본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핵병기 또는 핵부품, 구성부분 및 핵병기관련설비의 개발, 제조, 입수, 실험, 이용, 도입, 비축, 보관을 금지하며...”<sup>22</sup>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과 함께 다른 조항 역시 필리핀에서의 일체의 핵무기 개발, 설치, 비축, 보관, 하역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필리핀-미국의 군사 동맹관계의 분수령이 된다. 역시 가장 커다란 시사점은 미국은 필리핀의 영토 안에 핵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접근이 불허된다는 점이며 동시에 필리핀의 모든 군사기지의 폐쇄와 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1년 9월 미국과의 군사기지협정을 10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 계류 되었을 때 필리핀 국내정세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이 혼란의 중심은 미군 기지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미군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 이 협정의 연장을 찬성하는 집단의 중심에는 아키노 대통령이 있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폐쇄될 경우 양국관계의 악화, 경제 투자의 감소, 그리고 불안정한 국내 상황 등을 크게 우려하였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정부는 양국이 오랫동안 여러 부분에서 구축된 양국의 군사적, 외교적 우호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반면에 필리핀 상원은 미국과 협정을 반대하는데 선두집단중의 하나였다. 상원의원들의 상당수는 민족주의 정신이 강한 정

22. 본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필리핀의 반핵법안」, 『말』, 1988년 9월, pp. 52-54를 참조.

치인들이었고 미군은 필리핀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믿었다. 미군기지 임대의 연장 법안의 반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보다도 필리핀의 진정한 독립과 주권의 복원이었다. 당시 필리핀 상원의원인 아가피토 아키노(Agapito Aquino)는 “이 투표는 진정으로 주권을 갖고 독립적인 필리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이 투표는 미국의 조종꾼에 매어진 정치적 청년기 즉 극심한 종속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다”<sup>23</sup>라고 상원에서 역설하였다. 종속타파인 관점에서 보면 종속타파의 견인적인 메커니즘은 이론적 검토에서 제시된 것처럼 역시 주권의 회복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다. 필리핀 정치인들의 판단과 요구가 대다수 모든 필리핀 국민들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과 군사협정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 다른 견해는 필리핀 정치권에서 미국이 필리핀의 기지사용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도 제시되고 있다.<sup>24</sup> 필리핀 상원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 속에 아키노 대통령은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되고 결국은 미군기지협정의 연장법안은 1991년 9월 16일 상원에서 12대 11로 부결되었다.

필리핀 상원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7년 미국과 맺은 군사기지협정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필리핀에서 미국의 군사기지가 폐쇄되고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하지 않게 되었다. 미군은 1992년 말 이전에 필리핀의 영토를 떠나도록 권고 받았다. 이러한 점은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필리핀은 미국의 군사적 종속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 미국의 반응과 입장

필리핀에서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은 마르코스정권의 붕괴 이후 필리핀의 민주화 운동과

23. *The New York Times* 1991년 9월 16일 A1. 아키노 상원의원은 미군기지문제와 관련하여 형수이자 대통령이었던 코라손 아퀴노와 극심한 마찰과 갈등을 겪었다.

24. *The New York Times* 1991년 9월 11일 A3. 양국이 벌인 협상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수백만 해군기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일년에 20.3억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로운 정권의 창출을 고무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워싱턴은 그곳에서 미군의 기지와 군대의 철수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반미운동의 고조 등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가졌다. 특히 군사기지협정의 연장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정부의 불안감은 증대되었다. 국무장관 조지 슈츠(George Shultz)는 미국은 필리핀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기지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할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sup>25</sup> 미국정부는 필리핀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미운동이 궁극적으로 미군기지의 철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리핀 상원의 표결이 있기 전에 미국정부는 부결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리핀정부에 회유와 압력을 가하였다.

필리핀에서의 결정은 미국정부를 크게 실망시켰지만 기지연장을 둘러싼 필리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미국은 필리핀이 기지연장 협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필리핀과의 기지연장협정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필리핀의 군사기지와 미군의 주둔은 40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에서 방어적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의 결정은 대략 2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1980년대 말에 냉전이 서서히 종식되고 있었지만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임무와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였다. 따라서 필리핀의 군사기지의 철수는 안보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군사적 전략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간접적 파급효과이다. 필리핀의 미군기지 철수가 다른 주둔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철수로 연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였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필리핀은 결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양국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유지될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25 The New York Times 1988년 6월 17일. p. 7.

## 2. 이집트

### (1) 군사적 종속의 여건

1952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집트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였다. 국내적으로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으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나세르는 아랍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는 이미 냉전의 열기가 정점에 올랐고 그 여파는 중동에도 도달하였다. 이집트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 소련은 중동지역에서 패권경쟁을 격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련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NATO에 버금가는 지역안보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고 이는 바그다드 조약(Baghdad Pact)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미국은 이집트를 지역안보체제에 끌어 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이집트에 접근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련은 이집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동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아랍세계의 위상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다.

나세르가 집권 이후 이집트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이스라엘과 갈등과 분쟁이었다. 1955년 2월 이스라엘군대가 이집트 통제지역인 가자해협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서 3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양국은 본격적인 대립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집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의 증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였다. 이집트는 처음에 서방측에게 무기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곧 이어 소련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집트가 소련을 선택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나세르는 기본적으로 반서방주의 성향이 강하였고 당시의 국제정세로 볼 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영국과 미국 보다는 소련에게 무기를 요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955년 이집트는 체코를 대리국으로

내세운 소련과 무기협정을 체결하였다.<sup>26</sup> 이 무기협정을 통해 사실상 이집트는 소련에게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고 소련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장비 및 무기의 주공급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는 소련과 상호군사조약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세르가 특정국가와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찰스 크레멘스(Charles Cremeans)는 “군사공약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나세르는 항상 주장하였다”고 지적한다(1963: 281). 나세르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여 받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강력한 비동맹노선을 표방하였고 따라서 소련과 연계를 통해 의존의 상황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세르는 적어도 집권초기에는 특정국가와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 혹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이집트가 무기를 제공받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후 독립을 획득한 대부분의 제3세계 신생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국방력은 취약하였다. 따라서 이집트의 대외적 여건은 군사대국인 소련에게 자연스럽게 군사적 도움을 요구하게 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소련의 對이집트의 접근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모스크바는 전후 중동지역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냉전 구도 하에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집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중동에서 가능한 많은 우방국 혹은 동맹국을 만드는 작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의 하나였다. 더 나아가서 소련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소련이 시리아, 요르단 등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일련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 된다. 1955년 4월 16일 소련 외무성은 “소련은 근동 및 중

26.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45억불의 무기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무관심한 채 남아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의 군사기지시설과 블록화 현상은 소련의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sup>27</sup>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집트와 소련의 친밀한 관계는 수에즈 운하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1956년 7월 나세르는 수에즈운하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 운하를 둘러싼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었다. 제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소련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분수령이 되었다. 1960년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완전한 통제와 관리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에스완 댐 건설비용 3억 5천 달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이집트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소련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1964년 5월 이집트를 방문한 후르시초프(Khrushchev) 서기장은 나세르와 정상회담에서 2억 7천7백만 불을 융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sup>28</sup> 이 비용은 이집트가 1965년부터 추진하는 5개년 개발계획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집트는 점진적으로 의존하였고 의존의 내용은 경제원조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66년 5월 11일 소련 수상 알렉세이 코시긴(Aleksei M. Kosygin)은 카이로에서 가진 나세르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베트남 공격을 비난하면서 “양국의 국민은 평화, 사회적 전진, 그리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공동 목적과 이념으로 함께 협력 한다”고 선언하였다.<sup>29</sup> 양국의 우호관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의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 있었고 소련으로부터 추가적인 군사지원은 불가피하였다.

1967년의 3차 중동 전쟁(혹은 6일 전쟁)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참패한 후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 등을 빼앗기게 되었다. 전쟁의 패배는 이집트로 하여금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군

27. Alvin Z. Rubinstein. 1977. *Red Star on the Line: The Soviet-Egyptian Influence Relationship since the Jun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4에서 재인용.

28. *The New York Times*, 1964년 5월 25일 p. 1.

29. *The New York Times*, 1966년 5월 11일 p. 2.

사적 예측을 고착화시켰다. 월터 라퀘르(Walter Laqueur)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1972: 62).

6일 전쟁은 소련이집트 관계의 이정표를 기록하였다. 그 전쟁은 분실되거나 혹은 파괴된 모든 군사 장비를 빨리 대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소련에 대한 이집트의 종속을 극적으로 심화시켰고 ... 나세르의 요청에 따라 소련군이 탑승한 SAM-2과 SAM-3로 구성된 거대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집트에 설치되었다. 소련조종사들이 이집트내의 15개의 공군비행장에서 전투임무를 갖고 전투기를 발진시켰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특히 1967년에 발생한 6일 전쟁을 수행하는데 과정에서 소련은 이집트를 위해 간접적 방식으로 전쟁에 개입하였다. 소련의 군사고문단이 이집트에 상주하면서 막후에서 이집트에서 전술적, 전략적 도움을 제공하고 협력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sup>30</sup>

1970년 가을에 발생한 나세르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 사다트는 나세르의 이념적, 정책적 계승자였다. 따라서 그는 적어도 외형적으로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의 선택은 당연하였다. 6일 전쟁은 휴전상태에 접어들었고 전쟁은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개연성이 높았고 따라서 군사력의 보강은 그의 주된 목표였다. 그는 1971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에 대한 무기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1971년 7월 28일 양국사이의 우호조약으로 발전되었다. 이 조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사다트는 “우리국민은 아랍-소련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진정으로 아랍전체 국가들은 이 우정을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용한 기초중의 하나로 간주 한다” 고 역설하였다.<sup>31</sup> 양국은 1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우

30. 1970년 동안 이집트의 군복으로 위장한 소련군 조종사들이 이집트 영공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하여 공중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Craig A. Daigle. 2004. “The Russians Are Going: Sadat, Nixon, and the Soviet Presence in Egypt, 1970-1971.”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8(1), March. p. 3을 참조.

31. *The New York Times*, 1971년 5월 28일. p. 2.

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이집트와 소련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언급될 수 있다. 첫째, 이집트는 오래 동안 공식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것은 특정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나세르와 사다트의 정치철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세르의 죽음과 완결되지 않은 중동전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면적 차원에서 소련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조약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상호 협력 및 우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약의 세부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실상 군사원조와 무기지원을 포함한 일방적 방위조약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소련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방위공약의 의무를 갖게 되고 이집트의 군사적 예측은 보다 제도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 (2) 이집트의 對소련 군사적 종속: 실체와 상황

### 1) 이집트-소련의 군사협정과 상호우호 조약

이집트가 군사적으로 소련에 예측된 첫 번째 증거는 1955년 9월 이집트와 체코의 무기매매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협정은 사실상 소련과 이집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소련이 체코를 대리국으로 내세워 체결하였다(Cremeans, 1963: 146). 이 협정을 통해 소련은 이집트에게 무기를 공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집트는 소련에게 군사적으로 예측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 5월 27일 이집트와 소련의 우호 및 협력 조약(the Egyptian-Soviet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1955년 양국의 무기 협정이후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약의 전문은 “소련과 이집트는 양국의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고하게 강화할 것을 확신하며 … 양국은 평화로운 외교정책의 변함없는 진행에 따라서 보다 강력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것을 결의하며…”<sup>32</sup>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1955년 양국이 맺은 무기협정 보다 여러 부분에서 포괄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조

32. Julian J. Landau. 1971. *Israel and The Arabs*. Jerusalem, Israel: Israel Communications. p. 165 참조.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적시되어 있다. 순수한 측면에서 보면 이 조약은 이집트와 소련 사이에 맺어진 상호방위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약의 8조는 소련이 이집트에 대한 무기 공여를 포함한 군사원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약 8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아랍공화국(이집트)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귀한 체맹국은 양국사이의 협정의 조항에 기초하여 군사부분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한 협력은 일반적인 공격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의 후유증을 제거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집트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있어서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sup>33</sup>

이 조약은 외형적으로 양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소련이 일방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군사지원과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집트가 소련에게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 2) 군사기지 및 외국군대의 주둔

이집트의 소련군사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해군기지이다. 1967년 이후 소련은 이집트의 해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 포트 사이드, 그리고 머서 메트루(Mersa Matruth), 솔룸(Sollum), 그리고 홍해의 베레니스(Berenice)에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군사 활동을 하였다(Smaldone, 1980: 92-93). 두 번째는 이집트 주둔 소련의 공군기지이다. 소련의 공군기지는 모두 6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의 공군은 1970년 4월 이스라엘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중심부와 주요도시에 대한 방어 방을 구축하였다(Landau, 1971: 163-164). 이집트에서 소련의 군사기지가 설치됨에 따라 이집트의 소련군인이 주둔하였다. 1970년 중반까지 이집트에서는 12,000명의 소련군인이 주둔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전투조종사, 미

---

33. 상계서.

사일기지의 육군, 그리고 군사참모 및 고문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집트는 자국의 부족한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련군의 도움과 지원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였다.

### 3) 소련의 이집트 무기 공여

이집트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소련으로부터 많은 량의 군사장비와 무기를 공급받았으며 소련은 이집트에 대한 최대의 무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군사장비에는 군사용 비행기, 미사일, 그리고 군사용 선박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게 공급된 무기 공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군사용 비행기(전투기 포함)에는 MiG-15, MiG-17, 그리고 An-12 등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기간동안 소련은 다양한 형태의 전투기를 이집트에 공여하였다. 예를 들면, Su-7, MiG-21, Il-28 등이다. 미사일과 관련하여 이집트는 1960년대 이후부터 소련으로 공급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K-13 “Atoll,” SA-2, SA-6, SS-TC “Scud” 등이 대표적이다. 군사용 선박용도 소련의 주된 군사장비였으며 여기에는 잠수함, 순시함, 구축함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V” class, “W” class(잠수함), Skoryi, “Z” class(구축함) 등이다. 그 밖에도 장갑차 역시 195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집트에 공여되었다. 대표적인 모델은 BTR-40, T-34, T-54, 그리고 PT-76 등이다. 이집트는 소련이외에 체코, 프랑스, 유고 등에서 무기를 수입하였지만 전체 무기의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공여 받았다. 또한 1976년부터 1976년까지 소련이 아프리카에 공여한 전체무기판매 금액 중에서 44억불 중에서 이집트에 판매한 금액은 반이 넘는 23억불이었다.

### 4) 이집트 군인의 소련에서의 군사훈련 및 교육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집트군인들은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76년까지 해외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이집트의 군인 수는 6,250명이었고 이중에서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수는 5,665명이었고 나머지는 585명은 동구권의 국가에서 받았다(Smaldone, 1980: 93). 특히 주목할 만 사항은 같은 기간에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아프리카국가 중에서 이집트의 군인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훈련과 교육, 그리고 연

수 등을 통해 종속국가의 군인들은 피종속국의 군사교리와 전략, 그리고 전투수행의 방식 등을 익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피종속국의 군사적 도움과 지원이 없이 종속국은 자국의 군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겪거나 혹은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피종속국에서의 종속국의 군사훈련은 군사적 예속의 징표이다.

### (3)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 과정과 결과

앞서 제시된 군사적 종속의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 점은 이집트가 여러 부분에서 소련에게 의존하였음을 보여준다. 1970년 10월 대통령에 취임한 사다트는 나세르가 발전시켰던 소련과 관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양국이 구축한 동맹관계는 1972년에 접어들면서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2년 7월에 이집트는 자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사 고문단 20,000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러한 이집트의 조치에 대한 배경은 당시 이집트가 당면하였던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이해관계의 복합성에서 비롯되었다. 대략 3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사다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얻은 판단이었다.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군사 장비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했으나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후원자로 남아 있는 이집트는 얻고자 하는 목적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집트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소련고문단의 추방은 이집트-미국의 관계 개선의 맥락에서 선택된 행보였으며 이는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둘째, 이집트 국내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사다트의 개인적 정치적 결정이었다. 샤힌 아유브(Shaheen Ayub)의 주장에 따르면 사다트는 나세르와 달리 공산주의에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그의 정치철학과 배치되었고 더 나아가서 1971년에 발생한 이집트의 군사 쿠데타의 배후가 소련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1994: 169).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나세르 사망이후 사다트의 정치적 입지는 불안하였고 나세르 추종자들이 정치권

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다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의지였다. 나세르와 사다트는 공개적으로 소련의 군사적 예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기록은 사실상 거의 없다. 동시에 국내적 차원에서 소련과 군사적 관계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나 기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다트의 회고록은 소련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생각의 단면을 보여 준다.

내가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소련을 적절한 자리에 두고 싶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의 우호국으로서 당연한 위치에 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언젠가 소련은 이집트를 자기 사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소련은 이집트의 보호자라고 온 세계에 생각게 하곤 했다. . 나는 소련에게 이집트의 의사는 완전히 이집트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싶었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세계를 향해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알고 싶었던 것이다.<sup>34</sup>

사다트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가 보호-예속의 관계에서 피 지배국이 갖는 피해의식을 가졌으며 특정국가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독립성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터 즈윅(Peter Zwick)은 “1972년 소련군사 고문단의 추방은 심지어 가장 의존적인 동맹국들조차 이탈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소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다”<sup>35</sup>고 덧붙인다. 그 이후에도 이집트정부가 소련에 대한 접근을 지속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다트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집트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까지 소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러나 4차 중동전쟁의 패배는 이집트와 사다트를 실망시켰다. 전쟁이후 양국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3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와르 엘 사다트, 1984 『세계 대통령 수상 대회기록 8편』, 서울: 임창출판공사, p. 269 참조.

35. Peter Zwick, 1990. *Soviet Foreign Relations*. Englewood, N.J.: Prentice-Hall, Inc. p. 269.

배경에 대해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다. 루빈스타인은 4가지 원인을 제공한다. 첫째, 소련은 이집트에게 10월 전쟁 이후 전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둘째, 사다트는 소련에 대해 개인적인 혐오감을 가졌으며 셋째 미국이 이집트를 회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주효하였고 끝으로 소련은 수에즈운하의 복구비용에 대한 지원을 연기하였다(1977: 289-290). 간단히 설명하면 양국의 악화에 대한 배경은 사다트의 개인적 판단과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기인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사다트는 이집트의 진정한 국가이익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대외정책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진진하게 고심하였다. 그 이후 소련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서히 결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국관계의 악화는 이집트가 1976년 3월 14일 소련과 체결한 우호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곧 이어 1976년 4월 4일 사다트는 소련을 위한 이집트 항만시설을 폐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36</sup> 이로써 1955년 이래 양국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굳건한 동맹체제가 붕괴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군사적 예측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이집트의 민족주의의 역할과 자주권의 확립의 열기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나세르와 사다트 모두 강력한 민족주의와 비동맹노선을 견지하였고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극히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속타파의 정신과 원칙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다트는 소련과 동맹 체제를 파기함으로써 군사적 예측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집트-이스라엘의 대립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사다트의 그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 (4) 소련의 입장과 대응

1955년 이집트와 무기협정을 체결한 이래 소련은 막대한 군사원조와 장비를 지원하였고 경제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3차 중동전쟁과 4차 중동전쟁을 치루는 동안 소련의 지도자들은 이집트에 대한 방위공약을 견고하게 지켰다. 소련의 이러한 노력은 제3세계에 대한 소련 투자의 전형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소련지도부와 소련공산당은 이집트에 대한

36. *The New York Times*, 1976년 4월 5일. p. 1.



커다란 배신감을 가졌고 외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3세계의 주요한 전진기지를 상실하였다. 소련지도자들에게 더욱 실망스런 점은 사다트가 소련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점진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모색하였고 무기 공급원을 소련에서 미국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집트의 조치에 대해 소련은 이집트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소련의 외무성은 사다트의 조약 폐기는 점령된 아랍영토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이탈하려는 이집트의 지도력을 비난하고 이집트-소련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발표하였다.<sup>37</sup>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어떤 세력이 소련-이집트 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sup>38</sup>고 비난하였다. 소련의 타스 통신은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약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39</sup> 양국의 우호조약의 폐기는 사실상 이집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의 대외관계에서 이집트의 이탈은 중동지역에서 소련의 위상과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정부는 1976년 이후에도 중동에서의 팽창주의와 영향력의 확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한 가지 특이 할만한 사항은 소련은 1976년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해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소련은 앙골라, 모잠비크, 베트남 등과 일련의 우호조약을 맺고 중동지역에서 약화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간접적으로 이집트와의 결별에서 기인하는 좌절감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이집트와 소련의 관계는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으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논의된 사항과 내용은 필리핀과 이집트 미국과 소련에게 군사적으로 종속되었고 그 후 국내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예속을 극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은 <표 2>와 <표 3>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37. Rubinstein. 1977. p. 327에서 재인용.

38. *The New York Times*, 1976년 3월 16일. p. 3.

39. 조선일보, 1976년 3월 17일. p. 3.

<표 2>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 상황

군사적 종속의 지표 및 현황	필리핀(종속국) 미국(피종속국)	이집트(종속국) 소련(피종속국)
군사조약 및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미국 군사기지협정(1947)</li> <li>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19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소련 무기협정 (체코: 대라국, 1955)</li> <li>이집트-소련 우호 및 협력 조약 (1971)</li> </ul>
무기공여 및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0년대 이후 필리핀 미국으로부터 무기공여 및 구매</li> <li>미국, 필리핀의 최대무기 공여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5년 이후 이집트, 소련으로부터 무기공여 및 구매</li> <li>소련, 이집트의 최대무기 공여국</li> </ul>
군사기지 및 주둔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에 미국의 군사기지 및 시설 유지</li> <li>필리핀에 미군병사 주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에 소련의 공군기지 및 해군 정박기지 유지</li> <li>이집트에 소련의 군사고문단, 공군 조종사, 해군 주둔</li> </ul>
종속국의 군사교육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 군인 미국의 군사훈련소에서 교육 및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5~1978년 동안 이집트 군인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음</li> </ul>

<표 3>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상황

군사적 종속의 지표 및 현황	필리핀(종속국) 미국(피종속국)	이집트(종속국) 소련(피종속국)
군사조약 및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미국 군사기지협정 폐기 (1991. 9)</li> <li>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유효 (2006. 1월 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소련 우호 및 협력조약의 폐기(1976. 3)</li> </ul>
무기 공여 및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이후 필리핀, 미국무기 계속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6년 이후 이집트의 최대무기 공급국은 소련에서 미국으로 대체</li> </ul>
군사기지 및 주둔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리핀의 미군 군사기지 및 시설 폐쇄</li> <li>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의 군사기지 및 시설 폐쇄</li> <li>이집트의 소련 군사고문단 및 군인 철수</li> </ul>
종속국의 군사훈련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0년대 이후 필리핀 군인 미국군사 훈련 종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6년 이후 이집트 군인 소련에서 군사 훈련 종결</li> </ul>

#### IV.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비교분석: 결과물(Findings)을 중심으로

앞서 본 논문은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의 여건과 타파과정을 검토하였다. 양국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상황, 전개 그리고 결말 등에서 나타난 결과(Findings)를 4가지 항목 (1) 양국의 군사적 종속의 요인 (2) 군사적 종속타파의 과정과 전개 (3) 피종속국의 대응과 반응 그리고 (4) 양국의 군사적 종속타파의 자생적/타생적 타파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비교 평가한다.

먼저 필리핀의 경우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의 배경에는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국제적 요인은 1945년 이후 냉전의 국제정세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의 냉전의 상황, 1960년대 중반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시아의 공산주의화의 도미노 가능성 등은 필리핀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국내적 요인은 필리핀의 국내정세에서 기인한다. 필리핀은 무슬림 좌익 공산주의자의 준동과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국내정세가 극히 불안하였고 이러한 여건은 불가피하게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예속되게 만들었다. 이집트의 경우 소련과의 군사적 밀착관계의 배경에는 냉전의 요소는 커다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주된 배경은 1952년 이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3차례에 걸친 전쟁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집트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특히 나세르의 친소경향은 이집트의 군사적 예속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였다. 이러한 지도자의 성향과 리더십은 전후 역대 필리핀 대통령이 가졌던 친미적 성향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필리핀의 경우 국내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미국과 필리핀의 식민통치로 인한 관계가 독립이후에도 대미 군사적 종속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이집트의 경우 국외적 요인 즉 이스라엘과 전쟁 등이 지배적 요인이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군사적 종속타파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군사적 종속타파의 궁극적 목적은 진정한 독립과 주권의 실제적 회복

이다. 필리핀의 종속타파는 그러한 측면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필리핀은 1945년 미국과 동맹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인정하는 한편 동시에 자국의 주권의 손상과 자주권의 한계를 절실히 인식하였고 이는 점진적으로 양국관계의 평등성과 호혜성을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결정적인 변화를 준 사건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물결이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필리핀의 상원은 미군철수와 미군기지 폐쇄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물론 미군기지의 철수를 반대하는 필리핀의 여론도 있었지만 필리핀은 자주권의 확립을 위한 선택을 하였다. 반면에 이집트의 경우 소련의 군사적 연속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필리핀의 경우와 달리 국내적 차원에서는 극도로 미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1950년대, 1960년대 그리고 심지어 1970년대 초반을 거치는 동안 이집트 국민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승리가 무엇보다도 심대한 국가현안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對소 군사적 종속타파의 의지를 약화시켰다. 이집트의 군사적 의존은 이집트-이스라엘의 전쟁과 나세르의 개인적 결정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나세르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 경우 그가 추구하였던 대외적 군사관계에는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였다. 필리핀과 달리 이집트에서는 국민적 욕구로 집결된 힘이 동원되지 못했고 1970년 나세르의 사망과 함께 등장한 사다트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소련과 군사적 의존관계를 청산하였고 곧 이어 소련과의 정치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의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종속타파는 국내의 정치세력과 NGOs, 그리고 가톨릭계 등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였으며 이집트의 경우 필리핀에서 나타난 국내적 열기와 열의는 사실상 미약했고 오히려 사다트의 정치적 판단과 지도력에 의해 소련에 대한 군사적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세 번째에 관한 논의는 피종속국의 반응과 대응이다. 미국은 1991년 기지 연장법안이 상정될 즈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의 미군기지는 동아시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따라서 미군의 철수와 미군기지의 폐쇄는 안보상 커다란 손실이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필리핀의 반미군기지의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련 역시 이집트의 동맹관계의 단절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소련의 지도부는 분노와 좌절을 가졌지만 미국에게 접근하려는 사다트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소련과 미국은 자국이 오랫동안 지원하였던 후원국의 군사적 이탈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필리핀과 이집트의 군사적 종속타파가 자생적인가 혹은 타생적인가 하는 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 국가 모두 자국의 의지, 여망, 그리고 선택에 의하여 미국과 소련으로의 군사적 연속을 청산하였다는 점이다. 즉 자생적 종속타파에 해당한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기지협정 연장을 통해 미군을 계속적으로 주둔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필리핀 상원의 결정에 실망하였다는 점이다. 필리핀의 자생적 종속타파는 이집트의 사례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소련과의 군사적 친밀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정한 사다트의 입장과 선택은 자의적이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와의 군사적, 정치적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동에서의 미소대결의 우위를 위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다트가 소련과의 군사적 관계를 수정하려는 시도는 모스크바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사다트정부가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모습은 소련의 외교적 패배로 간주 된다.

## V. 결론: 군사적 종속타파 이후

앞서 설명된 것처럼 필리핀과 이집트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지배국인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종속타파를 이루었다. 본 논문을 종료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본다. 필리핀과 이집트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진정한 종속타파를 이루었는가? 종속타파 이후(After coundependence) 필리핀과 이집트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998년 2월 필리핀정부는 미국과 군대방문협정(the 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미국의 군대가 필리핀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필리핀이 군사적 종속을 극복하였다는 주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은 자국에서 더 이상 외국의 군사기지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군대가 법적인 틀에 의해 더 이상 잔류하지 않는 점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집트의 상황은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이집트는 소련과의 군사적 예속을 청산하였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배관계의 서막을 예고하였다. 이집트는 소련과의 관계를 청산한 이후 1970년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심지어 1989년 중반에는 1,200명의 미국군인이 이집트에 주둔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집트는 소련과의 군사적 관계를 청산하면서 동시에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이집트의 사례는 “군사적 종속의 수평이동 현상”을 보여 준다.

그러면 왜 종속타파 이후 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집트와 필리핀에 내재된 국가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예속을 성공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분쟁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련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여 또 다른 군사적 예속의 상황을 수용하였다. 반면에 필리핀은 국민적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극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 기지가 폐쇄되고 한 이후 필리핀정부는 외교적으로 아시아에서 고립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과 다소 소원한 관계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리핀은 미국과 군대방문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하였다.

군사적 종속타파 이후 이집트와 필리핀이 추구한 종속 회귀적 행태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양국이 보여준 군사적 종속타파의 성취는 퇴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국은 적어도 제한된 기간과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군사적 종속타파의 열의와 의욕을 보여 주었고 파트너 국가인 소련

과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군사적 종속을 극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대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의존 혹은 종속의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와 외교적 교훈을 제공한다.

## 참고문헌

- 김경숙. 1988. 「필리핀의 딜레마 군사기지」. 『말』 10월. p. 76.
- 마이클 헨델(저), 김진호(역). 1995. 『약소국 생존론』. 서울: 대왕사. pp. 148-149.
- 안와르 엘 사다트.. 1984. 『세계 대통령 수상 대회고록 8편』. 서울: 임창출판공사. p. 269.
- 양승윤. 2003. 『필리핀』.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pp. 69-70.
- 「필리핀의 반핵법안」. 『말』. 1988년 9월. pp. 52-54.
- 살바토르 마르티네그 1983. 「필리핀의 민족주의」. 『기독교 사상』 5월. pp. 37-51.
- Abemethy, David B. 1986.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s: How Shall We Define Them?" ed. Jan F. Triska. *Dominant Powers and Subordinate Stat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105-108.
- Arms Trade Registers: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 1975. Stockholm, Sweden: SIPRI. pp.17-19.
- Aybubi, Shaheen. 1994. *Nasser and Sadat: Decision Making and Foreign Policy (1970-1972)*.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p. 169.
- Berry, William E. 1989. *U.S. Bases in the Philippines: The Evolution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oulder, CO: Westview Press. pp. 289-299.
- Buss, Claude A. 1977.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Background for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for Public Policy. pp. 74-79.
- Cremeans, Charles. 1963. *Arabs and the World: Nasser's Arab Nationalist Policy*. New York, N.Y.: Prager Publishers, Inc. p.281.
- Daigle, Craig A. 2004. "The Russians Are Going: Sadat, Nixon, and the Soviet Presence in Egypt, 1970-1971."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8(1), March. p. 3.
- el-Sadat, Anwar. 1972 "Where Egypt Stands." *Foreign Affairs* 51(1), October. pp. 114-123.
- Foreign Military Sales, Froeign Military Construction Sales, Military Assistance Facts*. 1994. Washington, D.C.: DSAA. p. 10.
- Garcia, Ed and Francisco Nemenz. 1987. *The Sovereign Quest: Freedom From Foreign Military Bases*. Quezon City, Philippines: Claretian Publications. p.

4.

- Johnson, Paul M. 1986. "The Subordinate States and Their Strategies." In Jan F. Triska (ed.). *Dominant Powers and Subordinate Stat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286.
- Landau, Julian. 1971. *Israel and The Arabs*. Jerusalem, Israel: Israel Communications. p.165.
- Laqueur, Walter. 1972. "On the Soviet Departure from Egypt." *Commentary* 54(6), December. pp. 61-68.
- Lee, Chae-Jin and Sato Hideo. 1982.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Changing Influence Relationship*.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 McDonald, John W. and Diane B. Bendahmane. 1995. *U.S. Bases Overseas: negotiations with Spain, Greece, and the Philippines*. Boulder, CO: West view Press.
- Ra'anan, Uri. 1976. "The Soviet-Egyptian Rift." *Commentary* 61(6) (June). pp. 29-35.
- Saivetz, Carol R. and Sylvia Woodby. 1985. *Soviet-Third Relations*. Boulder, CO: Westview Press.
- Shoemaker, Christopher C. and John Spanier. 1984. *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s*.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pp. 13-15.
- Simbulan, Ronald G. 1989. *A Guide To Nuclear Philippines*. Manila, Philippines: Ibon Databank Phils, Inc. p. 59 & p. 78.
- Singer, Marshall R. 1972. *Weak States In a World of Powers*. New York, NY: The Free Press. pp. 273-309.
- Smaldone, Joseph. P. 1980. "Soviet and Chinese Military Aid and Arms Transfer." ed. by Warren Weinstein and Thomas Henriksen. *Soviet and Chinese Aid To African Nations*. New York, N.Y.: Praeger Publishers. pp. 92-93.
- Smolansky, Oles M. 1973. "The Soviet Setback in the Middle East." *Current History* 64(377), January. pp. 17-20.
- Rubinstein, Alvin Z. 1977. *Red Star On the Line: The Soviet-Egyptian Influence Relationship since the Jun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4. & Preface.
- Toppling the Idols and Breaking the Deadly Connection: U.S. Bases in the Philippines*. 1988. Quezon City, Philippines: National Forum for Church Responses. pp. 4-6.
-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Overseas Military Installations*. 1979. Washington, D.C.: U.S.G.P.O. pp. 144-145.
- Zwick, Peter. 1990. *Soviet Foreign Relations*. Englewood, N.J.: Prentice-Hall, Inc. p. 269.

『조선일보』

*The New York Times*



[http://en.wikipedia.org/wiki/Moro\\_Islamic\\_Liberation\\_Fornt](http://en.wikipedia.org/wiki/Moro_Islamic_Liberation_Fornt)(검색일: 2005년 9월 6일)

<http://www.lcweb2.loc.gov/cgi-bin/query>(검색일: 2005년 8월 17일)

<http://www.com/wfh2001/philippines>(검색일: 2005년 8월 5일)

<http://www.yonip.com/main/articles/1947.html>(검색일: 2005년 7월 29일)

<http://www.yonip.com/main/articles/treaty.html>(검색일: 2005년 7월 14일)

## The Military Counterdependence of the Philippines and Egyp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ae Youl Paek

Lecturer of Hongik and Yonsei Universities

During the 1950s the Philippines had received a great deal of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U.S., which also provided the former a wide variety of weapons and infrastructure as a result of the conclusion of a series of Military Agreements in 1947 and the Mutual Security Treaty in 1951. Subsequently, the Asian country has been heavily dependent on the U.S. in the affairs of defence to cope with internal instability and communist guerilla activities. Entering the mid-1980s, however, the people of Philippine strongly demanded that the U.S.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be dismantled, and U.S. soldiers be withdrawn. The protests culminated in the veto of the legislation which would have extended the military agreements in the Philippine Senate. Egypt shows a different yet similar example. After its independence in 1952, Egypt faced a serious conflict with Israel, and later waged three wars with the Jewish State throughout 1960s and 1970s. As Israel relied on the U.S. for its military support, Nasser could not help but to get the support and commitment from the Soviet Union, which then provided the Egyptian government with a number of different weapons and fighters. Egypt's heavy dependence on the communist nation had been maintained until July 1976, when Sadat decided to abrogate the Egyptian-Soviet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closed the Soviet naval facilities.

In short, both nations were able to cast off their long-standing military dependence on the world's superpowers by their own will and endeavour, which is referred to as "military counterdependence." Therefore, this paper first seeks to

explore the process by which the Philippines and Egypt overcame their military dependence on the U.S. and Soviet Union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hen, it analyzes the ways how these Third World countries have achieved counterdependence, focusing primarily on a set of factors and variables with regard to it. Finally, this work summarizes majo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ounterdependence in the cases of the Philippines and Egypt, presenting some final thoughts and implications for the age of post-counterdependence of these two nations.

Key Words: the Philippines, the U.S., Egypt, the Soviet Union, Military Dependence and Counterdependence, Independence, Nationalism,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